

## 한국최초 평양서 서양과학 소개한

# 윌 칼 루퍼스 (1876~1946년)

미국의 유명한 서점에 가서 루퍼스의 책을 찾아 보았다. 직접 가 본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그 서점에 들어가 옛날 책(古書)을 검색만 해 본 일이지만... 루퍼스 이름으로 나와 있는 고서는 하나 뿐인데, 중국 천문도 연구 논문인 「소주(蘇州) 천문도」라는 영문 제목으로 되어 있다. 24쪽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값은 37달러50센트라 붙여져 있다. 거의 5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그는 이 책을 미시간대학 천문학 교수였던 50여년 전에 썼다. 아마 그의 제자로 보이는 중국인 한사람과 함께... 하지만 루퍼스의 이름은 중국 천문학사 보다는 한국 천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이름이다. 그의 이름은 윌 칼 루퍼스(Will Carl Rufus, 1876~1946년)로서, 글을 쓸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첫 이름을 이니셜로 써서 <W. 칼 루퍼스>라고 표기했다. 아마 자신의 첫 이름을 칼로 부르게 한 모양이다.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도시 엘비온 출신인 그는 1907년 9월 부인 모드 스콰이어와 함께 2살, 3살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다. 평양에 부임한 루퍼스는 그 후 10년동안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에 힘쓰고, 한편으로는 과학 교사로서 조선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많은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이 선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선교사로서 보다는 한국 땅에 최초로 서

양 과학을 소개하고 가르친 사실로 길이 기억되어야 할 인물이다. 특히 그는 한국 천문학사를 처음으로 연구하여 자그마한 책을 남겼고, 두어가지 천문학사 논문을 남기기도 했다. 말하자면 루퍼스는 한국 천문학사 연구의 첫 장을 연 과학사 학자라고도 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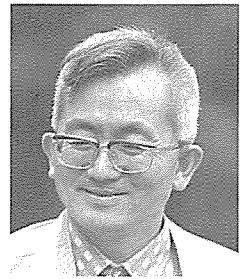
### 연희전문서 천문학 강의

평양 숭실학교 교사로 과학과 수학을 가르치던 그는 1915년 잠깐 귀국했다 돌아온 것을 빼고는 줄곧 한국에 머물렀다고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곧 새로 생긴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어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 연희전문은 영어로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이라 했다. 당연히 교수로 활동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많았다. 연희전문에서 그는 밀러, 베커 등과 함께 과학, 수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의 한국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10년 만에 그는 한국을 아주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가 한국을 떠난 것은 꼭 자신의 뜻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압제가 심하여 자신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을 포기하고 떠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면서 그는 「한국 선교계」(Korea Mission Field)라

는 영어 잡지 편집자(드 캠프 목사)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 글에서 그는 자신이 조선에서의 과학 교육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이유를 일본의 식민지 교육제도가 과학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일본어, 도덕, 실업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일본화된 시민을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능동적이고 인격을 갖춘 세계 시민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1907년부터 꼭 10년동안 이 땅에 살며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수학을 가르쳤던 미국인 교수 루퍼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미시간대학교 천문학 교수가 되었다. 사실이 그랬다. 루퍼스의 말처럼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선언하면서부터 조선의 교육을 식민지 정책에 맞춰 일본어를 보급하고, 일본의 식민지 국민으로서 가장 잘 순종하는 인민을 만드는데 모든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당연히 조선인에게는 고등 교육 기회는 마련될 태세가 아니었고, 보통교육에서는 일본어와 수신(修身) 등이 늘어나면서 과학은 줄어들었다. 그런 교육은 일제 시기 동안 줄곧 지속되었다. 일제 35년과 그 전의 통감부 시절까지 조선인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대학에서 이공(理工)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겨우 2백4명에 불과했다. 해방 전에 일본에서 이공 분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선인은 모두 5명 밖에 안된다. 그동

미국 미시간주 출신인 W. 칼 루퍼스(1876~1946년)는 1907년 선교사들과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땅에 최초로 서양과학을 소개하고 가르친 인물이다. 평양 숭실학교를 거쳐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한국에서 10년동안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다. 그 후 「조선천문학사」를 책으로 발간했고 우리의 국보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를 서양에 소개하고 미국 학회잡지에 한국천문도를 발표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의 제자 이원철(1896~1963년)을 한국 첫 천문학박사로 길러낸 장본인이다.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과학사〉

안 일본인은 아마 수만명, 아니 수십 만명이 이공계 대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일제(日帝)가 이 기간 동안 가장 참혹하게 우리 민족에게 끼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쌀을 빼어가고 무엇을 공출해 가져간 경제적 침탈 정도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고등교육을 전면적으로 박탈한 것에 있다.

### 「조선천문학사」 책으로 출간

아직도 우리는 걸핏하면 식민지 잔재를 말하고, 일제의 착취를 말하며, 일제 식민지 시기를 비판하고 있다. 또 일제에 부여했던 지식인들을 비판 없이 해방 후에도 다시 중요한 자리에 기용했다는 것 등을 비난하는 정도다. 그러나 일제가 철저하게 조선인의 과학기술능력 개발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역사 의식이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셈이다. 일제는 루퍼스 같은 서양인들이 조선에 머물러 기독교를 선교하는 것도, 조선인들에게 자유사상을 보급하는 것도 마땅치 않았다. 루퍼스가 올바르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은 조선인을 일제의 충성스런 신민(臣民)으로 만들 생각이었지, 전혀 조선인의 자주적 정신을 길러줄 생각도 없었고, 또는 능동적 인격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교육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루퍼스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아주 올바르게 진단하고 조선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가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아직 조사 연구해 놓은 자료가 없다. 여하튼 그는 1935년에 1년 동안의 안식년 휴가를 얻어 다시 조선을 찾았다. 그리고 조선에서 그는 연희전문 교장인 언더우드 3세의 집에 머물렀다. 언더우드의 부인과 루퍼스 사이는 친척 관계였던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1년동안에 그는 「조선천문학사」를 자그마한 책으로 발표했다. 그의 「조선천문학사」는 물론 영어로 쓰였는데, 원제목이 Korean Astronomy, Astronomy in Korea 등 두가지로 되어 있다. 1936년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잡지 제26권에 발표되었다. 그 당시 국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학술단체로 만들어 활동한 것이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한국지부였는데, 이 모임에서는 한해에 한두번씩 논문집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대개 개론적인 소개가 중심이나 그중에는 지금도 크게 도움될만한 연구도 있어, 루퍼스의 천문학사는 중요한 논문 가운데 속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우리 천문학사에 남긴 첫 업적은 아니다. 그는 짧은 침성대 수필도 썼지만, 본격적 논문으로는 우리의 국보 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地圖)를 서양에 소개하는 영어 논문을 1913년에 발표한 것이다. 1913년이라

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런 천문도에 대해 전혀 주목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사실 그는 이 글을 고쳐 대중적 천문학잡지 「대중천문학」(Popular Astronomy)에 발표했고, 또 1944년에는 미국 과학사학회 잡지 「아이시스」(Isis) 제35권에도 '한국의 천문도' 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이원철박사 등 제자 길러

또 그는 한국의 첫 천문학 박사를 길러내 준 은인이기도 하다. 연희전문에서 그의 제자였던 이원철(李源喆, 1896~1963년)박사가 그 사람이다. 1915년 제1회로 수물과에 입학했던 이원철은 루퍼스 아래 2년동안 공부하고, 미국 미시간주의 엘비온대학을 거쳐 루퍼스가 있던 미시간대학 천문학과에 입학하여 천문학 박사학위(1926년)를 받고, 귀국하여 연희전문 교수가 된 것이다.

미시간주의 앤 아버에 있는 미시간대학은 유명한 대학으로 지금 아마 한국 유학생이 수백명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근처에 있는 엘비온대학은 1843년 기독교학교로 시작되어 지금도 자그마한 대학으로 건재하다. 그 지역을 한번 답사하면 1900년대 초에 한국 과학교육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미국인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을 터이지만,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다. ㉟